가정예배 순서지 〈2020. 4. 12〉

·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녁 가정 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온전히 새기는 오늘 가정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하셔도 좋습니다)

추천 찬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남서울찬양 3) / 찬송가 167장

· 마음 모아 성경을 읽읍시다. (가족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3-4

· 읽은 후에 온 가족이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1) 오늘 예배 말씀을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게 약속된 유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른 가족들에게 한가지씩 이야기해봅시다.

2) 우리에게 남겨진 부활의 흔적은 나그네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나눠봅시다.

· 본문 말씀 나눔 (가장 혹은 예배 인도자가 대표로 읽으세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주일에만 기억할 일이 아니지요. 부활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남겨놓은 흔적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1.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소중한 부활의 흔적은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생명과 다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요11:43~44).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 쉬게 하는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의 생명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와도 다릅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 생명 역시 육체적 생명이었고, 하나님이 첫 창조에 만드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생명,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음과 결별하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 속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분별하며, 영원한 것을 따르는 삶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흔적으로 제시된,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 역시, '영원한 유업'으로 표현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썩지 않는다는 말, 더럽지 않다는 말,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유업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준비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준비된 것에 비하면 많이 작기는 하지만, 이미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경배할 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유업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표시는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은 진짜 나그네로서, 외국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외국에서 사는 나그네구나'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12절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생명, 하늘의 유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돈이나 쾌락과 같은 '썩어질 것'을 쫓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한마디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이들 역시 남의 나라에서 사는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나그네였습니다.

히11: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영적인 고향은 바로 우리의 유업이 준비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나그네의 삶이지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하늘나라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 **함께 기도제목을 간단히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돌아가면서 혹은 대표자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 하세요.**